

전남콘텐츠기업 육성센터 혁신도시에 설립

사업비 186억 들어 내년 지식산업센터 2개동 등 갖춰…VR 전문인력 양성

전남콘텐츠기업 육성센터가 내년초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들어선다. 센터는 가상현실(VR) 기반의 콘텐츠기업을 육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맡는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나주시 빛가람동 지식산업센터에 연면적 4593㎡ 규모의 ‘전남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설립한다.

센터 설립은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의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돼 이뤄졌다. 총 사업비 186억원(국비 48억, 도비 69억, 시비 69억원)으로, 지식산업센터 2개동에 56개 기업지원실, 기업협력실, 홍보·전시실,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갖춘다. 센터는 콘텐츠 기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형 공장을 지원한다. 지난 3월과 7월 투자협약을 체결한 콘텐츠기업 22

개사가 입주한다. 예비 창업자와 3년 이내 창업자를 모집, 아이디어 발굴 및 평가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발굴한 우수 아이디어는 멘토링을 거쳐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하는 등 유통할 수 있는 콘텐츠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도 돕는다. 도는 앞으로 2022년까지 콘텐츠기업

100개 유치, 신규 일자리 15000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특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기업이 스타 기업으로 성장하면 고용 창출 5000개, 매출 3000억원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센터는 에너지·정보통신 등 ICT와 콘텐츠 산업의 융복합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빛가람 콘텐츠타운”이라며 “콘텐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콘텐츠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평창올림픽 전후 적대 행위 중단을” 유엔 결의안 채택

유엔은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13일(현지시간) 촉구했다. 유엔은 이날 제72차 유엔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림픽의 이상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 건설’이란 명칭의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표결 없는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이견이 없어 사실상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올림픽 휴전결의는 올림픽 기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한 고대 그리스 전통을 이어받아 올림픽 주최국 주도하에 1993년 이후 하계·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시기에 2년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해왔다.

이번엔 북핵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휴전결의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더욱 크다. 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가 각각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 3월 9일부터 18일까지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되는 것을 주목한다”면서 “회원국들이 평창에서 개최될 동계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동계패럴림픽 개막 7일 후까지 유엔헌장의 틀 내에서 올림픽 휴전을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진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인사들의 안전한 통행과 접근 및 참가를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결의는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개발, 관용과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휴전결의는 주 제안국인 우리 정부 주도로 초안을 작성했으며, 유엔 회원국 간 문안 협상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연합뉴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정부대표단이 1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와 정승환 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연합뉴스

“문 대통령 공약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돼야”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학술대회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지역공약으로 제시한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개발’의 세부전략을 반영시켜 전남권 발전을 이끌어야한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는 이날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강당에서 ‘영산강 고대 문화자원 개발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대응전략’ 학술대회를 열었다. 정부 지역개발 공약에 포함된 영산강 고대 문화자원 개발 방향을 검토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다.

임영진 전남대 교수는 영산강 고대 마한 문화권의 성격에 대해 소개하는 기초강연

을 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인규 나주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에 ‘전라도 정도 1000년, 계기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이 포함됐고, 세부 전략으로는 나주·화순·영암·담양·함평·해남 등 고대 문화자원 개발, 글로벌 고대문화권(고대 마한문화촌) 테마파크 조성이 명시됐다”며 “고대문화 자원에 대한 학문적 성과 위에 개발 전략계획을 수립해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힘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세부발전 계획과 관련해, 이민석 전남대 건축학부교수는 ▲영산강유역 수계를 중심으로 권역 설정 후 특성에 맞게 문화

유적 복원과 재현 및 개발사업 추진 ▲영산강 생태환경의 관광조성을 위해 각종 생태공원조성과 순환경 경선도로 건설 ▲박물관이나 전시관 관광위탁시설 등의 관광객 수용기반의 확충을 통한 관광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중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의장(화순군수)은 “영산강 고대문화권은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는 들어 있었으나 제4차 계획에서 빠졌다”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는 화순군,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함평군, 영암군, 담양군, 장성군 등 전남 8개 지자체로 구성됐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해남 대흥사 묘법연화경 목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해남 대흥사에 소장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목판’(사진)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다. ‘묘법연화경 목판’은 문종의 병세가 악화하자 안평대군이 발원해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로 찍은 묘법연화경을 1561년 장흥 전관사에서 목판에 다시 새긴 것이다.

문화재청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와 2014~2015년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조사한 목판 가운데 완전성, 제작 시기, 보존상태, 희소성 등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묘법연화경 목판’ 등 9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묘법연화경목판’은 245판으로 수량이 가장 많은 목판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갑인자본 계열 ‘묘법연화경 목판’은 황해도 자비령사(1493), 충청도 무량사(1493), 경상도 신흥사(1545) 등지에서 간행했다고 알려졌으나 대부분 전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흥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은 유일본이자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전래되고 있어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박성천기자 skypark@

북한군, 귀순병에 소총 등 40여발 난사

軍 “JSA서 소총 휴대 정전협정 위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13일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군용 지프를 타고 군사분계선(MDL)까지 돌진해 배수로에 빠지자 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뛰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추격조는 귀순자가 MDL을 넘을 때까지 권총과 AK 소총 등으로 무려 40여발을 쏘아 JSA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군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상황 종료 후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보니 15시 14분에 북한군 3명이 북측 판문각 앞 도로에서 (남측에서 볼 때 왼쪽에 있는) 적 4초소 방향으로 신속히 뛰어가는 게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15분에 북한군 1명이 적 4초

소 부근으로 지프를 몰고 왔는데 차를 탄 채 MDL을 통과하려고 한 것 같다”며 “배수로 턱에 바퀴가 빠졌고 (판문각 앞에서 이동한) 경비병 3명과 4초소 경비병 1명이 쫓아오며 사격하자 차에서 내려 MDL 쪽으로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귀순자가 도주하는 동안 북한군은 무려 40여발의 총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JSA에서 소총을 휴대하는 것은 6·25 전쟁을 중단한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노재천 합참 정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엔사를 통해 엄중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학호남진흥원 초대 원장 공모 22일까지

광주시와 전남도는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운영할 초대 원장을 오는 22일까지 전국 공모한다.

장관이나 장관급 대우를 받게 되는 원장은 ▲한국학 분야의 지식과 경험 ▲지방·출자·출연기관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 ▲기타 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

(재)한국학호남진흥원장추천위원회가 오는 24일 접수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이사회에 2명을 추천, 이사회에서 최종후보자를 1명으로 심의·의결한 후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에게 승인·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채용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http://www.gwangju.go.kr>) 또는 전남도(<http://www.jeonnam.go.kr>) 누리집 공지사항 란을 참조하면 된다. 원장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지역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국학 민간 소장 자료를 수집·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2014년 10월 광주·전남 상생과제로 채택해 출원한 기관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비금도·팻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매 14억(임시불 대폭조정), 무인도
010-3605-5000 교환가능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건적 설계·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원도 악산면 독암리 바다점 2481㎡ 팬션·별장적합 2억4천
- 순창군 인계면 김동리 대지 1302㎡ 사철도 적합 7300만원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편안한 분위기 1억4500
- 정성 북이면 백양를게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 · 원룸 · 아파트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
- 월산동 소방도코너 대지 93㎡ 주택 94㎡ 7개 2인차 집 1억2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2천
- 서동 제일파크 7층 105㎡ 임대도 가능 매도 1억1000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원10전합 4억

투자 · 매도 · 교환

- 고흥군 동암면 바닷가 땅 9891㎡ 팬션 267㎡ 매도 10억
- 월산동 라온아파트 부근 2중주거지 758㎡ 다가구등 적합 7억
- 전북 진안군 산 470100㎡ 공사가 3억4천천원 신고 4억 매도 4억2천
- 담양 창평면 소재지 대지 등 10235㎡ 요양병원 등 최적 30억
- 함평읍 돌마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가구적합 6억2천
- 양계장 허가부지 장흥읍 15000여㎡ 축사허가도 있을 6억9천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답 4846㎡ 과수원·농장적합 1억

상가건물

- 영암군 삼호읍 땅 1312㎡ 건물 925㎡ 은행 2억5천 매도 4억3천
- 시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230만원씩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가게 27평, 2층 원룸1, 투룸2, 3층 안집 27평 은행1억 매도 5억6천천임대가능)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 매

- 장성군 백암사역부근 땅 364㎡ 3층건물 객실 17 매도 2억6500
- 북구 본촌동 공장·창고 적합 1300여평 분할가능 19억5천
-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건물 971㎡ 27실 6억7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송정리 부동산 매물

- ▶ KTX 개통 최대 혜택지
- ▶ 투자가치의 3개소
- ▶ 11억, 12억, 19억
- ▶ 각 코너 위치

※ 2018년 초 복합환승센터 착공예정

신안군 염전 매물

- ▶ 대형부지 (만오천평)
- ▶ 태양광 부지로 검토 필요
- ▶ 투자가치

문의 010-5236-7458